

# 부산 온종합병원 서남대 인수 나서

### 서남대 정상화 위해 2020년까지 총 1530억원 투자... “대한민국 의과학 주도하는 대학으로”

부산 온종합병원이 남원의 서남대의대 인수경쟁에 뛰어올랐다.

연내 인수가 성사되면 온종합병원은 개원 7년 만에 부산에서 5번째 대학병원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온종합병원(병원장 정근)은 3일 부산진구 온종합병원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 달 28일 서남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학교법인 서남학원 임시이사회(이사장 김화진)에 참석해 의대 등 서남대 인수를 담고 있는 ‘법인 서남학원 정상화 추진 계획안’ 정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근 병원장이 이날 발표한 온종합병원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에 따르면 온종합병원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2020년까지 총 1530억원을 투자해 서남대를 대한민국의 의과학을 주도하는 대학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종합병원은 일단 학교 운영권을 확보하면 우선 설립자의 횡령비리로 발생한 교비 손실금 330억원을 당장 투입해 교직원들의 체불임금 등 긴급 부채를 해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설립자 측의 횡령으로 학교 운영이 타격을 받으면서 학생모집 부진으로 이어져 교직원들의 임금체불액이 18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종합병원은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금 200억원을 마련해 에스프로 계획에 임금을 댔으며, 이 사실을 서남학원 임시이사회는 물론 학내구성원들과 남원시의회·남원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남대 정상화추진위 측에 증빙자료를 이미 제출했다.

또 긴급 채무 200억의 해결 외에 6개



한옥마을에 활짝 핀 봄의 전령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3일 오전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활짝 꽃망울을 터트린 개나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월에서 1년 이내에 추가로 134억원을 투입해 의대 기숙사 확충, 학생 편의 시설 설치, 남원요양병원 시설 보완, 의대 실습동 완공, 연구시설 확충 등 학교 발전을 꾀할 계획이다.

온종합병원은 학교 인수 이후 해마다 병원 수익금 중 50억씩 4년 동안 학교 발전기금을 출연해 의대 교수 증원, 학생 장학금 확대 등을 통해 서남대의대를 조속히 정상화할 계획이다.

지난 92년 설립된 서남대는 설립자 이흥하씨의 330억원 교비 횡령에 따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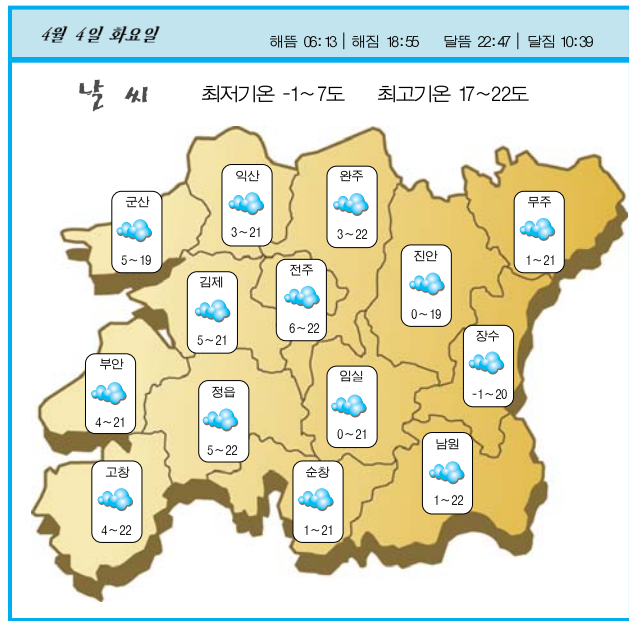
구속, 경영부실 대학 지정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새로운 재정기여자를 찾지 못하면 폐교 수순을 밟아야 한다.

서남대의대 인수를 주도하고 있는 정근 병원장은 “서남대를 조속히 안정화시킨 다음 2020년까지 1000 규모 의료법인 온종합병원을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전부 기부 출연해 ‘서남대의대 부속병원’으로 귀속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학교 운영이 힘들

었던 관동대의대를 인수해 의료법인 병원을 학교법인에 기부해 대학부속병원으로 전환한 인천 국제성모병원 사례를 집중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남대 인수에 성공하면 의대를 중심으로 한의학과, 약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등 보건의료계열 중심으로 재편해 전북 남원·임실, 전남 구례, 경남 등 지리산권을 대한민국 의과학의 메카로 만들어 영호남 화합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김민근기자



## 전북교육청, 놀이밥 60+프로젝트 설명회 개최

전북도교육청이 초등 놀이교육 활성화를 위한 ‘놀이밥60+프로젝트’ 운영 설명회를 3일 오후 2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황옥경 서용신 학대 교수가 ‘아동의 놀이 재개념화’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고 최태호 공보팀 주무관이 놀이밥60+ 학부모 교육 현황 및 성과를, 학부모 학교놀이지원활동가 놀이분봉는 ‘놀이밥60+ 학부모교육 참여 사례 및 동아리 운영 소감’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방과 후 학원 및 과외 등의 참여로 놀 시간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초등학교 60분 이상 놀이시간 확보로 어린이들이 놀 권리 보장하기 위한 놀이밥 6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학교자율선택과제(놀이

활동 참여를 통한 즐거운 학교 만들기) 희망 41교에 1억4천만원을 지원해 놀이밥 60+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2백12교에서 초등학교 중간놀이 프로그램을 학교 자율로 운영했으며 2백8교에서 방과후 놀이과정 개설 및 운영했다.

올해에는 36교를 대상으로 놀이밥 60+ 프로젝트를 계속 운영하고 중간놀이 프로그램과 방과후 놀이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자율선택과제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놀이밥 60+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 놀이 전수와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으로 또래집단간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 전북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선정

### 2019년까지 3년간 20억원 지원받아 지역 목재산업 육성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20억원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인 2017년도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주관 기관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2019년까지 3년간 20억원을 지원받아 지역 목재산업 육성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R&D를 통한 제품개발과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 비 R&D 지원을 통해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

하고 지역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통합형 기업지원 사업이다.

전북대는 지난 12월부터 시작된 개념·세련평가 선정평가 등의 단계 평가를 거쳐 사업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한국형 목조건축 부재산업 육성지원 사업.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의 목재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고부가 목조건축 부재의 제품개발, 기업지원, 마케팅

등을 통해 목조건축 부재 산업의 현대화 및 활성화를 꾀하고 나아가 지역 목재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양수 사업단장(목재응용과학과 교수)은 “한국형 목조건축 부재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의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강소기업 육성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해은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 “국정원 직원 교육청 출입 금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출입을 불허하기로 했다.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승환 도 교육감은 “오늘부터 국정원 직원들의 전북교육청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도 교육청을 비롯해 교육지원청과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국정원과 접촉을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정원 접촉 금지령’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구체적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교육감이 국정원의 무리한 정보수집 활동·과도한 행태 등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어 내린 결정으로 추측하고 있다.

/정해은기자

## 학부모교육·학부모회 모집 사전 설명회

전북도교육청은 3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회 모집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7일까지 14개 교육지원청에서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 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북교육청 학부모교육 추진 계획 및 학부모회 모집기간 신청방법, 활동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한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와 학부모 학교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10일부터 18

일까지 학교참여지원 학부모회를 모집한다.

올해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교육, 동아리 운영, 학교참여 및 지원 등을 주요 추진내용으로 한 연간 학교 참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를 통해 소속 지역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학부모회의 학교참여 수준 학교참여 활동 계획, 예산 집행계획, 학교 및 지역사회의 지원계획을 평가해 150개 학부모회를 선정해 2백만원씩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해은기자